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5, No. 137, pp.79-115
<https://doi.org/10.29212/mh.2025..137.79>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기획 3

아시아 · 태평양전쟁 이후 연합군의 일본 진주와 일본군 해체

유지아 |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부교수

- 목 차
- I. 머리말
 - II. 일본의 항복과 대일점령 결정
 - III. 연합군의 진주와 점령정치 개시
 - VI. 연합군의 일본군 해체와 무장해제
 - V. 맺음말

초 록 본 연구는 1945년 직후 대일점령의 시작 과정과 일본군의 해체과정을 고찰하였다. 그 이유는 이 과정이 현재 일본의 안보와 헌법 그리고 자위대의 존재와 위상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연합국에 의한 일본 점령의 특징은 복수 국가에 의한 분할 점령이 아닌 미국에 의한 단독 점령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직접 통치가 아닌 일본 정부를 존속시킨 상태에서 간접 통치 방식을 취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미국은 일본의 정부기관을 이용한 점령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며, 엘리트였던 일본군 및 장교들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는 미국이 일본군의 전면 해체라는 원래의 점령계획과는 달리 일본군을 존속시켰고, 이들은 이후 일본이 재군비하는 과정에서 재원이 되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아시아-태평양전쟁 후 일본의 항복과 점령 체제는 미국과 연합국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용되었다. 특히 냉전이 고착화되면서 미국의 단독 점령이 견고해지고, 일본 또한 미국에 의지한 안보체제를 강화하면서 아시아-태평양전쟁에 대한 책임의식은 희박해졌다. 그 결과, 일본은 패배했지만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형성하는 대신 아시아와의 관계나 전후처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이러한 인식은 각국의 역사 교육, 정치적 담론, 그리고 국제 관계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제어(Key Word) : 아시아-태평양전쟁, 연합군 진주, 대일점령, 일본군 해체, 복원

원고투고일 : 2025. 10. 13. 심사수정일 : 2025. 12. 01. 게재확정일 : 2025. 12. 15.

I. 머리말

1945년 8월 14일, 일본은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고, 다음 날 15일에 천황의 라디오 육성 연설을 통해 ‘종전조서(大東亜戦争終結ノ詔書)’를 발표했다. 8월 15일 오후에 스즈키 간타로(鈴木貫太郎) 내각이 총사퇴하자, 기도 고이치(木戸幸一) 내대신은 후임 총리대신 선출을 위해 중신회의(重臣會議)를 소집하지 않고, 후임 수반으로 천황 일족인 히가시쿠니노미야 나루히코 왕(東久邇宮稔彦王)을 추천하여 천황의 동의를 얻었다. 천황은 같은 달 17일에 히가시쿠니노미야에게 명하여 사상 최초이자 유일한 황족 내각이 발족하였다.

당시 해리 S.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은 포츠담 선언에 근거하여, 영국, 중화민국, 소련의 동의를 얻어, 남서태평양방면 연합군 총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Douglas MacArthur) 원수를 8월 15일자로 ‘연합군 최고사령관(SCAP)에 임명하고, 연합국에 의한 일본 점령을 실시할 권한을 부여했다. 이에 마닐라에 있던 연합군 사령부는 8월 16일에 일본군의 즉각적인 정전을 명령했다. 이 명령에 따라 먼저 일본 해군이 같은 달 17일에 25일 오전 0시를 기해, 이어서 일본 육군이 다음날인 18일에 22일 오전 0시를 기해 모든 무력행사를 정지해야 한다는 봉칙명령(奉勅命令:천황의 명령)을 발했다. 8월 19일에는 참모차장 가와베 도라시로(河辺虎四郎) 육군 중장을 전권 위원으로 하는 항복조항 수령 임무단이 마닐라를 향해 출발하였다. 맥아더는 같은 달 30일에 아쓰기(厚木) 비행장에 도착했고, 이와 동시에 일본 본토에는 제5군 및

제8군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 육군이 진주하였다. 한편, 미국 해군 제3함대의 함정은 사가미(相模)만과 도쿄만에 진입했고, 해군 육상 부대는 요코스카(横須賀)로 진주하였다.

패전 후 대일 점령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축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주요한 주제는 패전 후 점령정치와 미일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패전 직후 일본에서 어떻게 점령이 시작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 성과가 많지 않다. 특히 아시아·태평양전쟁을 이끌었던 일본 군대의 해체와 미군 진주에 대한 연구는 상세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일본의 패전으로 인해 일본은 군대해체만이 아니라 정치와 행정도 정지된 상태에서 점령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후 일본 사회에서는 점령의 형태나 형식에 더욱 관심을 두고 있었으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후에는 일본의 독립과 안보문제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¹⁾ 그리고 군대에 대한 무장해제나 해체는 당시 일본 군대 대부분이 전투를 위하여 아시아 각지에 파견된 상태였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연합군의 명령에 따라 연합군에 의해 실행된 데도 이유가 있다. 이러한 가운데 유지아는 남한에서 일본의 무장해제와 관련하여 한미일 관계의 전후 초기 질서 형성과 그에 따라 형성된 민족 간 불신 구조를 분석하였다.²⁾ 그러나 본고는 국가 간 관계보다는 일본의 무장해제 과정 자체와 미군이 일본 진주 과정을 중심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마쓰다 등은

1) 주요한 연구로는 荒敬, 『日本占領史研究序説』, 柏書房, 1994; 五百旗頭真, 『占領期—首相たちの新日本』(20世紀の日本3), 読売新聞社, 1997; 五百旗頭真編, 『戦後日本外交史』, 有斐閣, 1999; 五百旗頭真編, 『日米関係史』, 有斐閣, 2008; 楠綾子, 『占領から独立へ 1945~1952』, 吉川弘文館, 2013; 福永文夫, 『日本占領史 1945~1952—東京・ワシントン・沖縄』, 中央公論新社, 2014; 升味準之輔, 『日本政治史 4—占領改革, 自民党支配』, 東京大学出版会, 1988 등이 있다.

2) 유지아, 「전후 재조선일본군의 무장해제 과정에서 형성된 한미일관계」, 『한일관계사연구』, 2007.

일본군의 무장해제에서 전범재판, 복귀과정과 함께 구 일본군 엘리트의 사회적 재편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기도 했다.³⁾ 또한 야마모토는 일본 육군의 패전 및 해체 결정, 그리고 항복 이후 해체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⁴⁾ 최근에 가와나 신지(川名晋史)⁵⁾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해외 미군 기지를 보유한 미군이 일본에 주둔하게 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가와나는 패전 직후의 상황은 전사(前史)로 간략히 다루고, 새로운 사료를 바탕으로 점령기부터 한국전쟁, 안보개정, 오키나와 반환, 냉전종결, 현대의 후텐마 이전 문제까지 기지와 미일관계의 궤적을 따라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 1945년 직후 대일점령의 시작과 일본군의 해체 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패전에서 점령, 그리고 강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추적하는 것은 ‘전후 일본’의 원형이 형성되는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전후 일본’의 체제가 현재 일본 사회와 정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현재’ 일본의 모습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일본의 안보와 헌법 그리고 자위대의 존재와 위상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그 시발점이 되는 패전 직후 일본군의 해체와 미군의 진주에 주목하고자 한다.

3) 増田弘, 『大日本帝国の崩壊と引揚・復員』, 慶應義塾大学出版会, 2012; 山縣大樹, 『帝国陸海軍の戦後史——その解体・再編と旧軍エリート』, 九州大学出版会, 2020

4) 山本智之, 『日本陸軍戦争終結過程の研究』, 芙蓉書房出版, 2010.

5) 川名晋史, 『在日米軍基地 米軍と国連軍, 「2つの顔」の80年史』, 中公新書, 2024.

II. 일본의 항복과 대일점령 결정

패전 후, 연합국에 의한 일본 점령의 특징은 복수 국가에 의한 분할 점령이 아닌 미국에 의한 단독 점령이라는 형태를 취했다는 점, 그리고 일본 정부를 존속시킨 상태에서 직접 통치가 아닌 간접 통치 방식을 취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패전국으로서 연합국에 의해 점령당한 독일의 처우와는 크게 다르다.

원래 미국 정부 내에는 연합국의 부담을 분담한다는 관점에서 일본 분할 점령안도 존재하였다. 1945년 8월 16일 통합참모본부의 통합전쟁계획위원회가 작성한 안에서는 일본 점령을 위해 영국, 소련, 중화민국에 대규모 군대 제공을 요청하고, 홋카이도(北海道)와 도호쿠(東北)를 소련의 점령 하에 두도록 했으나, 미국 정부가 18일에 승인한 것은 분할 점령을 부정하는 국무성 안인 ‘SWNCC 70/5’였다.⁶⁾ 그리고 맥아더를 최고사령관으로 하는 통합적 일본 점령에 미국 이외의 연합국이 협력·참가하는, 사실상 미국에 의한 단독 점령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이날 트루먼 대통령은, 이를 전에 소련의 최고 지도자인 이오시프 V. 스탈린(Iosif V. Stalin)이 제기한 “일본군이 소련군에 인계할 구역에 사할린과 홋카이도 사이에 위치한 소야(宗谷) 해협 북쪽에 인접하는 홋카이도 북반부를 포함할 것”이라는 요구를 거부했다.⁷⁾ 그러나 스탈린

6) “SWNCC 70/5,” August 18, 1945, 740.00119 Record Group 59, Department Records Decimal File, 1945-1949, CONTROL (JAPAN)/18-1845, National Archives (Washington, D.C.).

7) 「J·V·스타린首相發, H·トルーマン大統領宛親展密書」(1945年8月16日); 「トルーマン大統領發, 스탈린大元帥宛通信」(1945年8月18日) 茂田宏·末田昌二編, 『日ソ基本文書·資料集 1955-1988年』, 世界の動き社, 1988, 53-54쪽.

이 10월 이후에도 일본 점령에 대한 참여를 계속 요구함에 따라, 12월 16일부터 26일까지 열린 모스크바 미·영·소 3국 외상 회담에서 연합국의 대일 점령에 대한 국제적 틀이 형성되었다.

모스크바 외상 회담 결과, '극동위원회'(FEC)와 '대일이사회'(ACJ)가 설치되었다. 극동위원회는 대일점령정책의 최고 결정기관으로서 워싱턴에 설치되었으며, 미국, 영국, 소련, 중화민국, 프랑스,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필리핀으로 구성되었다. (후에 버마와 파키스탄이 참가) 대일이사회는 도쿄에 설치하여 맥아더에게 자문하는 기관으로, 미국, 중화민국, 소련, 영국 연방(호주가 영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를 대표)으로 구성되었다.⁸⁾ 그러나 극동위원회와 대일이사회 모두 형식적인 기관에 불과했으며, 일본 점령 통치의 실권은 미국 정부와 맥아더의 총사령부가 장악하게 되었다. 실제로 미국은 긴급 상황이 발생할 시 다른 연합국과 협의 없이 '중간 지령'을 발할 수 있는 특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직접 통치나 간접 통치나 문제와 관련하여, 포츠담 선언 제10항은 "일본국 정부는 일본국 국민들 사이의 민주주의적 경향의 부활 및 강화에 대한 일체의 장애를 제거해야 한다"(제10항)고 규정함으로써 간접 통치를 시사하고 있었다.⁹⁾ 그러나 맥아더 사령부는 포츠담 회담 이전부터 패전 후 일본에 대한 직접 통치를 기조로 하는 '블랙리스트' 진주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따라서 9월 2일 항복 문서 조인식이 끝난 직후, 총사령부 부참모장 리처드 J. 마셜(Richard J. Marshall) 준장은 종전사무연락위원회 소속 스

8) 鹿島平和研究所編, 『日本外交史2 6-終戦から講和まで』, 鹿島研究所出版会, 1973, 129-132쪽.

9) 「4. ポツダム"米英支三国宣言(1945年7月26日"ポツダム"ニ於テ)」 JACAR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Ref.B18090004500, ポツダム宣言受諾関係一件 第3巻(終戦関係調書)(A'1.0.0.1)(外務省外交史料館)

즈키 구마(鈴木九萬) 공사에게, ① 일본국의 전 영역 및 그 주민을 연합국 최고사령관의 군사 관리 하에 두고, 일본 정부의 행정·입법·사법 일체의 권능은 앞으로 최고사령관의 권력 하에서 행사될 것, 군사 관리 기간 중에는 영어를 공용어로 할 것, ② 항복 문서의 조항, 최고사령관의 권한 하에 발출된 명령에 대한 위반자, 적대 행위자, 치안 방해자 등을 군사 재판에 의해 처벌할 것, ③ 일본은행은 엔화와 함께 미국군 군표 B엔을 일본의 법정 통화로 할 것, 이 세 가지 사항을 ‘삼포고(三布告)’로써 다음 날 3일에 공포하겠다고 통고하였다.¹⁰⁾ 이에 대해 일본 측은 반발했고, 3일에 시게미쓰 외상이 맥아더 최고사령관과 만나, 점령 정책에 대한 일본 정부의 협력을 약속하고 삼포고 철회를 요청하였다. 맥아더가 시게미쓰의 요청을 수용함으로써 일본은 직접 통치를 피할 수 있었다.

9월 2일, 도쿄만에 정박중인 미국 해군전함 ‘미주리’호 선상에서 맥아더 주재 하에 항복 문서 조인식이 거행되었다. 조인식에는 일본 측에서 천황과 정부를 대표하는 시게미쓰 마모루(重光葵) 외상과, 대본영(大本營)¹¹⁾을 대표하는 우메즈 요시지로(梅津美治郎) 육군대장, 그리고 미국, 중화민국, 영국, 소련, 호주, 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 뉴질랜드의 연합 9개국 대표가 각각 참석했다. 맥아더는 “나는 상호 불신, 악의, 증오의 마음을 품고 여기에 모인 것이 아니며, 오히려 승전국이든 패전국이든 관계없이 인류의 보다 높은 존엄성에 도달하기를 기원하고 있으며, 나는 유보없이 그리고 충실하게 나의 책무를 수락한다”고 말한 뒤, “이 식전을 기회로 삼아 과거의 유혈 참사로부터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좋

10) 鹿島平和研究所編, 『日本外交史 26—終戦から講和まで』, 27쪽.

11) 일본 제국이 전쟁 혹은 전투상황 중에 설치한 일본 제국 육군 및 일본 제국 해군의 최고 통수 기관으로, 천황의 명령(奉勅命令)을 대본영 명령으로 발하는 최고 사령부로 기능했다.

은 세계가 도래하고, 자유와 관용과 정의를 실현하는 세계가 수립되기를 기대한다”고 연설했다.¹²⁾ 이 연설에 이어 일본 전권, 맥아더, 각국 대표 순으로 항복 문서에 서명 및 조인이 이루어졌다.

항복문서에서는 각국 대표가 일본의 대본영, 소재지를 불문한 모든 일본군, 일본의 지배하에 있는 모든 군대가 연합국에 대한 무조건 항복을 선포하고, 소재지를 불문하고 모든 일본군과 일본 국민에 대한 적대 행위를 즉시 중지할 것, 모든 선박, 항공기, 군용/비군용 재산을 보존하고 그 훼손을 방지하며, 연합국 최고사령관 또는 그 지시에 근거하여 일본 정부의 여러 기관이 부과해야 할 모든 요구에 응할 것을 명령하였다. 또한, 포츠담 선언의 조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 동 선언을 실시하기 위해 연합국 최고사령관 또는 기타 특정 연합국 대표자가 요구할 수 있는 모든 명령을 발하고, 그러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천황, 일본 정부, 그리고 그 후계자를 위해 약속했다. 더불어 천황과 일본 정부의 국가 통치 권한은 이 항복 조항을 실시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하는 연합국 최고사령관의 제한 하에 놓이게 되었다.¹³⁾

이 항복문서 조인식의 의의는 천황이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암묵적으로 천황의 전쟁책임에 대한 의무가 없음을 암시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천황의 통치권을 연합국 최고사령관의 제한 하에 놓음으로써 다른 연합국의 간섭 없이 천황의 면책권을 미국이 부여할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 이는 일본에 대한 점령이 미국 단독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으며, 반면 간접통치를 해야 하는 미국은 일본국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천황의 면책을 이미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다.

12) 鹿島平和研究所編, 『日本外交史 26—終戦から講和まで』, 22쪽.

13) “降伏文書” 鹿島平和研究所編, 『日本外交史 26—終戦から講和まで』, 452-453쪽.

한편 패전 후 일본이 점령한 지역을 살펴보면, 만주국은 8월 17일 린장시(大栗子)에서 장징휘(張景惠) 수상 주재로 열린 중신 회의에서 국가 해산을 결정하고, 다음 날인 18일에 푸이(溥儀) 황제는 퇴위하였다.¹⁴⁾ 한반도에서는 9월 9일 총독부에서 조선 총독 아베 노부유키(阿部信行) 육군대장과 미국 태평양 육군 최고사령관 대리 겸 조선 주둔 미군 사령관 존 R. 하지(John R. Hodge) 중장 및 미국 해군 대표 토머스 C. 킨케이드(Thomas C. Kinkaid) 대장이 남조선에 관한 항복 문서에 조인하였다.¹⁵⁾

이처럼 아시아·태평양전쟁의 전장이 되었던 동아시아 각지에서는 일본의 항복과 종전에 대한 시기가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이는 동아시아가 전쟁 종결에 대해 각기 다른 인식을 갖는 시발점으로 작용하면서, 이후 역사적 경험과 국가적 정체성, 그리고 전후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었다. 예컨대 한국의 경우는 일본의 패전으로 해방되었지만, 동시에 미군정의 시작과 한반도의 분단으로 인해 일본의 식민지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도 과거사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갈등을 겪고 있다. 반면, 중국은 일본의 항복을 항일전쟁의 승리로 간주하며, 중화인민공화국의 정당성과 국가 정체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하고 있다. 일본은 패전했지만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형성하여 재건하는 과정에서 아시아와의 관계에서 풀어야 할 전후처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각국의 역사 교육, 정치적 담론, 그리고 국제 관계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14) 鹿島平和研究所編, 『日本外交史 26—終戦から講和まで』, 71쪽.

15) 鹿島平和研究所編, 『日本外交史 26—終戦から講和まで』, 24쪽.

Ⅲ. 연합군의 진주와 점령정치 개시

1945년 8월 10일에 일본이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기로 결정하자, 미국은 같은 달 14일에 공식적으로 맥아더를 연합국 점령군 최고사령관(SCAP)으로 임명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로 인해 점령 정책을 감독하고 일본 정부를 관리할 권한이 맥아더에게 부여되었고, 그는 “항복 조건을 집행할 모든 군사 및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이에 맥아더는 히로히토 천황이 종전선언을 발표한 다음 날인 8월 16일에, ‘정지전령 및 마닐라행 대표파견’을 요구하는 전보를 일본 대본영에 보냈다. 전보의 첫 문장은 “일본국 천황, 일본국 정부 및 일본국 대본영은 연합국의 항복조건을 수락하였으므로, 연합국 최고지휘관은 일본군에 의한 전투의 즉시 정지를 명함”이라고 되어 있다.¹⁶⁾ 그리고 전투행위 정지의 발동일과 시간을 연합국 최고지휘관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최고지휘자가 항복조건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를 수령할 대표자를 파견할 것을 다음과 같이 명령하고 있다.

1. 즉시 연합국 최고사령관에게 사자를 파견하라. 이 사자는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 A. 일본군대 및 그 사령관 배치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
 - B. 연합군 최고지휘관 및 군대가 일본진주를 위해 도착할 때, 그 지시에 맞추기 위해 충분한 권한을 부여할 것¹⁷⁾

16) 江藤淳, 『占領史録(上)』, 講談社学術文庫, 1995, 35쪽.

17) 有末精三, 『終戦秘史 有末機関長の手記』, 芙蓉書房出版, 1987, 55쪽.

이러한 사실에서 미국은 일본에 진주할 당시부터 일본의 정부기관을 이용한 점령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며, 전쟁 시기 일본을 지휘했던 일본 군대와 장교들을 그 역할을 수행할 책임자로 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¹⁸⁾ 이 통고에 따라 일본은 가와베 토라지로(河辺虎四郎)¹⁹⁾ 참모차장을 전권위원으로 하는 항복사절단을 마닐라에 파견하였다. 그리고 미군의 일본진주를 준비하기 위하여 8월 24일 현지기관으로 아쓰기연락위원회(厚木連絡委員會)를 설치하여 위원장에 아리스에 세이쥬(有末精三)²⁰⁾ 중장을 임명하였다. 당시 아쓰기 해군비행장에서는 제302해군 항공대의 사령관인 고조노 야스나(小園安名) 대령이 일본의 항복을 받아들이지 않고 연합국군에 항전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며 매일 전투기 등을 출동시켰다. 그러나 8월 20일에 해군 대령 다카마쓰노미야 노부히토(高松宮宣仁) 친왕의 설득으로 무장해제되어 같은 달 23일에 아쓰기 비행장을 개방할 수 있었다.²¹⁾ 이는 아쓰기연락위원회 위원장 등의 임명이 24일까지 늦어진 이유이다. 이후 위원회는 비행장 내의 상황을 점검하고 점령군을 맞이할 준비를 시작했다.

8월 28일에는 아쓰기 비행장에 미군 선발부대가 진주하였다. 선발 부대의 주요 임무는 ① 아쓰기 비행장의 정비, ② 숙영(宿營) 및 급양(給養) 등의 준비, ③ 아쓰기에서 요코하마까지의 교통·

18) 유지아, 「일본재군비과정에서 제국군인의 역할과 위상」, 『日本歴史研究』第33輯, 2011, 233쪽.

19) 패전 직전 참모차장이었으며, 패전 후에는 GHQ 참모2부의 월로비에 접근하여 군사정보부 역사과에서 특무기관인 「河辺機関」(가와베기관)을 결성하였다. 이후 일본의 재군비과정에서 경찰예비대 창설에 관여하였다.

20) 패전 직전 참모본부 제2부장이었으며, 패전 전부터 패전 후의 보신을 위해 연합국에 제출하기 위한 첩보관계자료를 비밀리에 회수하였다. 패전 후에는 GHQ의 통치가 시작되자 맥아더의 첩보를 지원하던 월로비에 협력하여 가와베토라지로와 와타나베와타루(渡辺渡)와 함께 동아시아 및 국내의 공산주의자 첩보망을 만들었다.

21) 柳田邦男, 『零戦燃ゆ 渾身篇』, 文藝春秋, 1990, 541-543쪽.

통신의 확보 등이었다. 아쓰기위원회의 준비로 무사히 일본에 진주한 미군은, 당시 일본군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중심으로 민간 재산까지 포함하여 전국 각지의 비행장, 항만시설, 저유(貯油)시설, 통신시설, 군수공장, 막사(barracks), 창고 및 민간 소유의 개인 주택 등을 잇달아 접수하였다. 패전 당시, 일본군의 연습장 및 군용으로 제공되었던 토지는 전국적으로 1,443개 지역이었으며, 총 면적은 약 3,000km²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미 진주군은 약 460km²를 직접 접수하였다.²²⁾ 토지의 사용 및 접수는 9월 3일 연합군 최고사령부지령(제2호 제4부)에 따른 조달 요구서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접수 대상이 사유 재산일 경우에는 일본 정부가 그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연합군에 제공하였고, 국유 재산인 경우에는 연합군이 무상으로 사용하였다.²³⁾

이어 8월 30일에는 일본 점령 지휘를 맡은 맥아더 원수도 아쓰기 비행장에 도착했으며, 연합군으로 구성된 점령군도 일본에 상륙했다. 맥아더는 일본을 군사점령하기 위해 연합국 각국의 군대에서 파견된 최대 43만 명을 통괄하게 되었다. 맥아더는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요코하마로 이동하여 그랜드 호텔에 머물렀다. 또 점령군의 중핵이 될 제8군도 요코하마 생사검사소인 야마시타 공원지구에서 야영을 하기로 결정하고, 점령군 최고사령부는 요코하마 세관에, 제8군 사령부는 우체국 건물에 각각 들어가게 되었다.²⁴⁾ 미군이 요코하마에 진주함에 따라 여기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요코하마연락위원회(横浜連絡委員会)가 설치되었으며, 육군위원에는 아리스에 중장이, 해군위원에는 나카무라 가츠헤이(中村勝平) 소장이 각각 임명되었다. 이들 기관은 패전 후 설치된 종전연락 요코하마사무국과 함께 지역내 점령군과의 연락

22) 川名晋史, 『在日米軍基地 米軍と国連軍, 「2つの顔」の80年史』, 4쪽.

23) 川名晋史, 『在日米軍基地 米軍と国連軍, 「2つの顔」の80年史』, 5쪽.

24) 坂本祐信, 『近現代日本の軍事史』 第3巻, かや書房, 2014, 18쪽.

기관이 되어 점령군의 지시를 일본정부와 군부에 전달하고 중개하는 역할을 하였다.²⁵⁾

한편, 아쓰기비행장에 점령군 사령부가 도착하기 전인, 8월 27일부터 진주부대를 실은 연합군 함선이 사가미만(相模灣) 이즈(逗子) 앞바다에 집결했다. 1945년 8월 27일 오후 1시가 넘어서, 전함·순양함 17척으로 이루어진 선발 함대가 사가미만에 집결했다. 당시의 사가미만에 집결한 미군 함대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미 제3함대는 흐린 하늘 아래, 낱빛으로 물드는 해상을 향해하여 일본 본토에 접근하고 있었다. 전함 ‘미즈리호’를 중심으로 하는 함대가 사가미만 앞바다에 모습을 나타낸 것은 오전 10시 반이다. 전함, 순양함, 구축함, 운송함을 합쳐 육상에서 손꼽히는 함영만 60척에 달했다. 그것은 수평선상을 덮고 일본의 바다를 압도하는 대함대였다.²⁶⁾

사가미만 일대는 적 상륙의 물가 작전에 대비해 일본 육해군이 방위선을 구축한 지역이었다. 무수한 총안을 열고 지하호가 설치된 에노시마(江ノ島), 해안선을 따라 나지막한 소나무 숲에 20mm 대공기총포대가 배치된 지가사키(茅ヶ崎) 해변에는 육군 53군 공병대가 구축한 격납고 등이 들어가 있는 곳이었다. 오이소(大磯) 데루가사키(照ヶ崎) 해안의 내륙부 쇼난히라(湘南平) 센조시키(千畳敷)는 물가에서 적군을 쏘는 포대였다. 히라츠카(平塚), 마나즈루(真鶴)도 연안은 모조리 무장하고 있었다. 전멸해도 후퇴는 없는 하리츠케 사단(はりつけ師団)²⁷⁾의 진지였다.

25) 유지아, 「일본재군비과정에서 제국군인의 역할과 위상」, 234쪽.

26) 河原匡喜, 『マッカーサーが来た日—8月15日からの20日間』, 新人物往来社, 1995, 164쪽

27) 연안배비사단(沿岸配備師団)으로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일본군이 본토결선을 준비하면서 급거 편성한 사단이다. 배치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인원·장비가

한편 영국 연방군의 일본 상륙은 일본이 패전한 뒤 약 반년이 지난 1946년 2월 8일에 이루어졌다. 영국 정부는 1945년 8월 13일에 영연방 구성국들에게, 아시아·태평양전쟁 종결 후 호주·영국·인도·캐나다·뉴질랜드 육군이 단일 영국 연방군을 형성하여 일본 점령에 참가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호주는 이 제안에 반대하며, 맥아더 휘하의 호주인 사령관의 지휘 아래 독립적인 대일 점령군 파견을 주장했다.²⁸⁾ 호주 정부는 태평양 지역의 안전보장이 자국의 안전에 필수불가결하며, 이는 자국 방위력의 증강과 미국과의 안전 보장 협력을 통해 담보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호주 정부는 처음에 호주 단독의 독립된 군대를 일본에 파견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영국이 주장하는 영국 연방군에 참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존 노스콧(John Northcott)²⁹⁾ 호주 육군 참모총장이 영국 연방 점령군(BCOF)의 총사령관이 되었고, 10월 18일에 워싱턴 D.C.의 호주 공사관은 호주인 사령관 지휘 아래 호주·영국·인도·뉴질랜드 4개국의 육·해·공군으로 구성된 통일 군대인 영국 연방군을 형성하여 일본 점령에 참가할 의향이 있음을 미국 정부에 통보하였다. 이와 동시에 영국 연방 점령군 총사령관은 군사작전상으로는 연합국 최고사령관에게, 병참과 정책 및 관리상으로는 영국 연방 점령군 통합 참모 본부(JCOSA)를 구성한 호주 통합

정수를 채우지 않아도 편성이 완료되었으며, 특히 장비는 무기 탄약의 현저한 부족으로 극히 빈약하여 전투력이 충분하지 않았다. 적을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불박이 사단(はりつけ師団)’, 또는 ‘허수아비 사단(かかし兵団)’이라 불렸다. 연안 배치 사단은 4개 보병 연대를 가진 사단이었는데, 이 중 1개 연대만 반격 연대라고 불렸고, 마필을 넉넉하게 배치하여 기동성을 높인 편제로 되어 있었다.

28) 竹前栄治, 『英連邦日本占領軍(BCOF)の成立(1)(上)』, 『東京経大学会誌. 経済学』 207, 1998, 173-183쪽.

29) 1890-1966. 제2차 세계 대전 중 참모총장을 역임한 호주 육군 장군으로 일본 점령 시 1945년 12월부터 1946년 6월까지 영연방 연합군을 지휘했다.

참모 본부를 통해 영국 연방 관계국 정부에 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³⁰⁾ 이에 11월 24일 미국 정부는 영국 연방군의 일본 점령 참가를 원칙적으로 승인하였다. 그러나 운영 방침에 대한 회담에서는 독립적인 대일 점령군 지위를 확보하려는 호주와, 영국 연방국들이 동등한 조건으로 일본 점령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는 미국 사이에 난항이 거듭되었다. 결국, 12월 18일에 맥아더-노스콧 협정으로 최종 확정되었는데, 호주가 주장했던 바와 달리 영국 연방 점령군은 군사 작전에서는 맥아더 연합국 최고사령관의 지휘 하에 들어갔으나 병참과 관리에 있어서는 영국 연방 점령군의 독립성이 담보되었다. 영국 연방 점령군의 병력은 약 43,000명으로 예정되었다.³¹⁾

1946년 2월 8일 영국 연방 점령군의 선발대가 구레(呉)에 도착했고, 2월 13일에는 제34 호주 보병 여단과 영연방 기지 부대가 최초의 본격적인 부대로 구레에 도착하였다. 맥아더는 영국 연방군이 도착하기 전인 2월 3일 노스콧에게, 영국 연방 점령군의 점령 지구를 주고쿠(中國) 및 시코쿠(四國) 지방으로 한정하도록 요청하였다.³²⁾ 그 이유는 중국이 일본 점령군 파견을 중지했기 때문이었다. 더불어 미국은 복원 및 동원 해제가 긴급한 과제가 되어 점령군을 급속히 축소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1946년 3월 이후 일본에 도착한 영국 연방 점령군은 히로시마(広島)는 물론 야마구치현(山口県), 시마네현(島根県), 오카야마현(岡山県), 돗토리현(鳥取県)에 차례로 진주하였다. 이들의 진주가 1946년 5월에 거의 완료됨으로써, 연합군의 대다수를 차지한 미국 육·해군을 중심으로 구성된 미국점령군(USOF)은 연합국군 최고사령관 직할 지휘하에서 대부분의 도도부현을 담당하고, 영국연방점령군(BCOF)이 주

30) 千田武志, 『英連邦軍の日本進駐と展開』, 御茶の水書房, 1997, 68쪽.

31) 川名晋史, 『在日米軍基地 米軍と国連軍, 「2つの顔」の80年史』, 19쪽.

32) 千田武志, 『英連邦軍の日本進駐と展開』, 131쪽.

코쿠와 시코쿠 지방을 담당했다.³³⁾ 영국 연방 점령군의 병력은 다음 표와 같이 1946년 12월 31일 기준 37,021명이었다.³⁴⁾

〈표 1〉최성기 영연방군의 병력

	해군	육군	공군	계	비율
영국	493	6,835	2,478	9,806	27
인도		10,584	269	10,853	29
호주		9,912	2,006	11,918	32
뉴질랜드		4,178	266	4,444	12
합계	493	31,509	5,019	37,021	100

(출처: 川名晋史, 『在日米軍基地 米軍と国連軍, 「2つの顔」の80年史, 22쪽)

한편, 9월 2일에 도쿄만에 정박한 미즈리호에서 항복문서 조인식이 거행되었다. 일본 대표로는 천황 및 일본 정부를 대표하여 시게미쓰 마모루(重光葵) 외무대신이, 대본영을 대표하여 우메즈 요시지로(梅津美治郎) 참모총장이 서명했다. 연합국 측에서는 맥아더 연합국 최고사령관이 4개 연합국(미·영·소·중)을 대표하여 서명하고, 또 일본과 전쟁상태에 있는 다른 연합국을 대신하여 서명하였다.³⁵⁾ 또 이와 별도로 미국 해군 사령관 체스터 니미츠(Chester William Nimitz, Sr.) 제독, 중국의 쉬용창(徐永昌) 장군, 영국의 브루스 프레이저(Bruce Austin Fraser, 1st Baron

33) サー・セシル・パウチャー, 『英国空軍少将の見た日本占領と朝鮮戦争』, 社会評論社, 2008, 10쪽.

34) 1950년 3월 31일, 호주 정부는 규정된 대일 점령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영국 연방 점령군의 전면 철수를 결정하고, 미국 및 다른 영국 연방국들에 이를 통고했다. 미국 정부는 5월 19일에 이를 승인했으나, 한달 후 한국 전쟁이 발발하여 급히 실행했다.

35) https://www.mofa.go.jp/mofaj/annai/honsho/shiryo/qa/sengo_02.html#06
 外務省: 外交史料 Q&A “太平洋戦争終結に際して調印された降伏文書(Instrument of Surrender)は、現在どこに保管されていますか”(2025. 10.16, 검색)

Fraser of North Cape) 제독, 소련의 쿠즈나 데레브얀코(Kuzma Mykolaiovych Derevyanko) 중장, 오스트레일리아의 토머스 블라메이(Thomas Blamey) 장군, 캐나다의 로렌스 무어 코스그레이브(Lawrence Moore Cosgrave) 대령, 프랑스의 필립 르클레르(Philippe François Marie de Hauteclocque) 대장, 네덜란드의 헬프리히(Conrad Emil Lambert Helfrich) 중장, 뉴질랜드의 레오나드 이시트(Leonard Isitt) 중령 등이 순서대로 각국을 대표해 서명하였다.

항복문서 조인식이 끝나자, 9월 17일에 점령군 총사령부가 도쿄로 이전하여 맥아더 숙소는 구 미국대사관에, 사령부는 히비야의 제1생명빌딩에 자리잡게 되었으며, 제8군은 요코하마에 그대로 머물렀다.³⁶⁾ 연합국 총사령부의 이전과 함께 육해군연락위원회도 도쿄로 이전하였으며, 10월 2일에 연합국 최고사령관을 정점으로 하는 ‘연합국 최고사령관 총사령부’(GHQ/SCAP)를 발족하여 점령을 위한 관리체제를 정비하였다. 이 명칭은 항복문서에도 ‘일본 정부는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연합국 최고사령관)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항복문서 조인에 관한 조서에서도 ‘연합국 최고사령관’의 지시에 따라야 함을 표명하면서 사용되고 있다. 이후에도 일본 법령에서는 ‘연합국 최고사령관’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많다. 연합국 최고사령관 아래에 속하는 조직은 General Headquarters, the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GHQ/SCAP)를 일본어로는 ‘연합국 최고사령관 총사령부’ 또는 ‘연합국 총사령부’로 번역하여 GHQ라는 약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간접통치 방식의 채택이 총사령부 기구 정비에 미친 영향은 군정국(軍政局)이 폐지되고 민정국(民政局, GS)이 설치된 것에서 나타

36) 有末精三, 『終戦秘史 有末機関長の手記』, 163쪽.

난다. GHQ에서는 참모장 휘하에 참모부와 특별 참모부를 두고, 참모부에는 제1~4부를 설치하였으며, 특별 참모부에는 민정국 외에 법무국(LS), 공중위생복지국(PHW), 민간첩보국(CIS), 천연자원국(NRS), 경제과학국(ESS), 민간정보교육국(CIE), 통계자료국(SRS), 민간통신국(CCS) 등을 설치하였다.³⁷⁾

동시에 일본측도 이에 앞서 점령군과 일본정부간 연락을 담당하는 중앙기관 설치를 추진했다. 8월 22일 최고전쟁지도회의가 폐지되었고, 다음 날 23일에는 각료급의 ‘중전처리회의’가 설치되었으며, 이 회의의 하부 기구로 각 성청(省庁) 차관·국장급의 ‘중전사무연락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8월 26일 외무성 내에 ‘중전연락중앙사무국’을 신설하고, 9월 7일에는 ‘연합국 지방군에 대한 제정보의 제공 및 연락을 위한 중전연락중앙사무국 지방기구 각의결정’에 따라 교토에 중전연락중앙사무국 지방기구를 신설하였다. 이후 9월 15일에는 교토, 요코하마, 나라, 구레, 요코스카, 사세보 5개 지방사무국이 구성되었으며, 9월 23일까지 설립된 중전연락지방사무국은 전국에 15개소에 이르렀다. 전후 중전연락사무국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전범용의자의 지명출두 및 필리핀에서 전범재판의 개시
2. 점령군이 지도한 국내정치범 특히 일본공산당원의 석방에 수반하여 국내에 대한 사상선전, 일본약체화 제시책의 전개
3. 연합군 특히 미국군에 의한 제조사의 실시
4. 도쿄 및 그 외 민간가옥 접수
5. 일본육군 해체에 수반하는 제기구의 개혁
6. 공직추방 일부담당
7. 극동위원회의 성립³⁸⁾

37) 鹿島平和研究所編, 『日本外交史 2 6—終戦から講和まで』, 136-137쪽.

38) 有末精三, 『終戦秘史 有末機関長の手記』, 170쪽.

위의 활동에서 알 수 있듯이 종전연락사무국은 연합국 총사령부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며, 일본점령에 대한 전반적인 사무를 담당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패전 직후 일본 정부는 포츠담 선언으로 기정사실화된 점령을 받아들이면서, 미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이처럼 천황보존주의를 견지한 일본의 정치인들과 미국의 성과주의가 맞물리면서 큰 마찰 없이 점령정책이 정착한 것이다.

Ⅵ. 연합군의 일본군 해체와 무장해제

패전 당시 일본군의 총병력은 육군이 일본 내에 240만, 해외에 300만, 해군이 일본 내에 140만, 해외에 40만 정도였다. 따라서 이러한 군대를 해체하고 해외로부터 귀환시키는 일은 매우 큰 문제였다. 그러나 연합국으로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도 했다. 포츠담 선언 제7조에는 “이러한 신질서(제6조의 평화, 안전 및 정의의 신질서)가 건설되고, 또한 일본국의 전쟁수행 능력이 파쇄(破砕)되었다는 확증이 있을 때까지는 연합국이 지정하는 일본국 영역 내의 여러 지점은, 우리들이 여기에 지시하는 근본적인 목적의 달성을 확보하기 위해 점령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³⁹⁾ 이는 연합국이 일본을 점령하는 목적이 일본의 무력화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연합국은 이를 위해 포츠담 선언 제9조에, “일본국 군대는 완전히 무장을 해제당한 후, 각자의 가정으로 복귀하여 평화적이고 생산적인 생활을 영위할 기회를 얻도록 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일본이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는 순간, 일본군은 전

39) 「4. ポツダム"米英支三国宣言(1945年7月26日"ポツダム"ニ於テ)」

투를 하던 각 지역에서 완전히 무장 해제된 상태로 귀국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일본이 항복한 후 8월 29일에 미국은 SWNCC 150-4문서를 맥아더에게 전달했다.⁴⁰⁾ 이 문서는 미국 국무·육군·해군 3부 조정위원회가 작성한 것으로, 미국의 초기 대일점령방침을 정한 것이다. 이 문서의 정치부분에서 “무장해제 및 비군국주의화는 일본 점령의 주요한 임무로서 즉시 그리고 단호히 실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은 육·해·공군, 비밀경찰조직 그리고 모든 민간항공을 보유할 수 없으며, 일본의 지상·항공·해군병력은 무장을 해제하고 해체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GHQ는 항복 문서 조인식이 끝난 후, 바로 일본군의 해체를 명하는 지령을 일본 정부에 보냈다. 이 명령서 전문에는, 일본 천황 및 일본 제국 정부의 대표자와 일본 제국大本營의 대표자가 서명한 항복 문서의 규정에 따라, 첨부된 “일반명령 제1호, 육군과 해군과 이를 부연하는데 필요한 훈령을 일본국 군대 및 일본국 지배하에 있는 군대와 관련 비군사 기관에 지체없이 발송하고, 이것을 충분하고 완벽하게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다.⁴¹⁾ 항복문서에는 실제로 히로히토 천황의 서명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일본군에 대한 무장해제에 대한 명령이었기 때문에 일본군의 최고통수권자인 천황을 명시적으로 언급했음을 알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일반명령 제1호에는 대일점령의 전제가 되는 일본군의 전투정지와 무장해제 절차, 군사시설, 포로·역류자에 관한 정보제공, 외지 일본군의 항복상대 등 군사사항의 세목이 규정되어

40) <https://www.jacar.archives.go.jp/das/image/C15011312900> 「降伏後に於ける米国の初期の対日方針」(SWNCC 150-4) B18090004500. (2025.10.16. 검색); 江藤淳, 『占領史録 1—降伏文書調印経緯』, 講談社, 1989, 301-331쪽.

41) https://www.mofa.go.jp/mofaj/ms/da/page22_002192.html 일본외무성 자료「GENERAL ORDER NO.1」, OFFICE OF THE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2 September 1945(2025.10.16. 검색)

있다. 먼저 첫 번째 항목에는 일본의 육·해군에 대해, 칙명에 의거하여 그리고 천황에 의한 모든 일본군대의 연합국 최고사령관에 대한 항복에 따라, “그들 지휘하의 일본군 및 일본 지배하의 군대로 하여금 즉시 적대 행위를 중지하고, 무기를 내려놓고, 현 위치에 머무를 것”을 명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중화민국, 연합국 및 대영제국, 그리고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각 지휘관에게 무조건 항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지시된 지휘관이나 그들의 지정된 대표자들과 즉각 접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중국, 한반도(38선 기준 남북), 만주, 동남아시아, 태평양 제도 등 각 지역에서 일본군이 어느 연합군 지휘관에게 항복해야 하는지를 포함하여 항복 지역과 대상 사령관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 (a) 중국 (만주 제외), 타이완 및 북위 16도 이북의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에 있는 일본군의 선임 지휘관과 모든 육상·해상·항공 및 보조 부대는 장제스 총사령관에게 항복해야 한다.
- (b) 만주, 북위 38도 이북의 조선, 가라후토(樺太, 사할린) 및 쿠릴 열도에 있는 일본군의 선임 지휘관과 모든 육상·해상·항공 및 보조 부대는 소비에트 극동군 최고사령관에게 항복해야 한다.
- (c) (1) 안다만 제도, 니코바르 제도, 버마, 태국, 북위 16도 이남의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말라야, 수마트라, 자바, 소순다 열도 (발리, 롬복 및 티모르 포함), 부루, 세람, 암본, 카이, 아루, 타닌바르 및 아라푸라 해의 섬들, 셀레베스, 할마헤라 및 네덜란드령 뉴기니에 있는 일본군의 선임 지휘관과 모든 육상, 해상, 항공 및 보조 부대는 동남아시아 사령부 연합국 최고사령관에게 항복해야 한다.
- (2) 보르네오, 영국령 뉴기니, 비스마르크 제도 및 솔로몬 제도에 있는 일본군의 선임 지휘관과 모든 육상, 해상, 항공 및

보조 부대는 호주 육군 최고사령관에게 항복해야 한다.

- (d) 일본 위임통치 제도, 오가사와라 제도 및 기타 태평양 제도에 있는 일본군의 선임 지휘관과 모든 육상, 해상, 항공 및 보조 부대는 미국 태평양 함대 최고사령관에게 항복해야 한다.
- (e) 일본 대본영, 일본 본토, 이에 인접한 소규모 섬들,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류큐 열도 및 필리핀 제도에 있는 선임 지휘관과 모든 육상, 해상, 항공 및 보조 부대는 미국 태평양 육군 부대 최고사령관에게 항복해야 한다.
- (f) 위에 언급된 지휘관들은 항복을 수락할 수 있는 유일한 연합국 대표자들이며, 일본군의 모든 항복은 오직 그들 또는 그들의 대표자에게만 이루어져야 한다.⁴²⁾

이어서 명령서에는 일본국 대본영은 또한 국내외의 지휘관들에게 위치에 관계없이 모든 일본군 또는 일본 지배하의 군대를 완전히 무장 해제시키고, 상기 연합국 지휘관들이 정하는 시기와 장소에서 모든 무기와 장비를 손상되지 않고 안전하며 양호한 상태로 인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일본 경찰 기관에 대해서는 추가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이 무장해제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하고, 그들의 직위에 머물러야 하며 법과 질서 유지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전투 병력에 대한 자세한 무장해제를 즉각 실시한 반면, 그 지역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경찰은 유지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또한, 일본 대본영은 본 명령 수령 후 지체 없이 연합국 최고사령관에게 일본 및 일본 지배하 모든 지역에 관한 완전한 정보 즉, 군사 시설, 무기 목록, 억류된 연합국 포로 및 민간인 목록 등 광범위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해야 하며, 모든 무기의 제조 및 분배

42) https://www.mofa.go.jp/mofaj/ms/da/page22_002192.html 「GENERAL ORDER NO.1」(2025.10.16. 검색)

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항공기 운항 정지, 선박 이동 금지 및 폭발물 처리 등 장애물 제거 및 항해 보조 시설 복구를 명령하였으며, 책임 있는 일본 및 일본 지배하 군 및 행정 당국은 연합국 최고사령관으로부터 추가 지시가 있을 때까지 장비 및 시설을 손상 없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2조에 일본 및 일본 지배하의 군 및 행정 관헌 및 개인(私人)은 본 명령 및 이후 연합국 최고사령관 또는 다른 연합국 군관헌이 발하는 모든 지시를 성실하고 신속하게 따라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특히 “본 명령 또는 이후 명령의 규정을 준수하는 데 지연이 있거나 준수하지 않을 때, 그리고 연합국 최고사령관이 연합국에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행위가 있을 때는 연합국 군 관헌 및 일본 정부는 엄중하고 신속한 제재를 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이 명령이 연합국이 발하는 최고 수준의 명령임을 암시했다.

이처럼 연합국에 의한 일본 점령 정책의 첫 번째 방침은 일본의 비군사화였다. 그리고 군사 관련 시설 및 군수 공장의 파괴 또는 접수, 군사 기구의 해체가 추진되었다. 우선 8월 25일에 발표된 ‘육해군인에 대한 칙유(勅諭)’에 의해, 육해군 전투 부대는 해체되었고, 육군성과 해군성의 업무는 복원 업무(제대 및 귀국)만 남게 되었다. 이어서 10월 15일에는 해군 군령부가, 11월 30일에는 육군 참모본부가 각각 폐지되었다. 나아가 12월 1일에는 육군성과 해군성이 폐지되고, 각각 제1복원성(復員省)과 제2복원성으로 개편되었다. 이로써 메이지 시대 창군 이래 위용을 자랑했던 대일본 제국 육해군은 소멸되었다.

한편 패전을 맞이한 일본 정부는 진주군을 맞이하는 작업과 함께, 해외에 있는 군인 및 군속, 일반 해외 주재 일본인을 귀환시켜

야 했다. 당시 해외에는 약 660만 명의 일본인이 이주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⁴³⁾ 그러나 일본 정부는 패전 직후 재외일본인에 대한 방침으로 “가능한 현지에 뿌리를 내리고 공존공영의 생활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는 입장이 우세하였다.⁴⁴⁾ 포츠담 선언 제8조에, ‘카이로 선언’의 조항을 이행하기 위해 ‘일본국의 주권을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와 연합국이 결정하는 작은 섬들로 국한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외일본인이 현지에 남아 ‘공존공영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본 점에서, 일본은 여전히 패전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표 2〉 패전 시, 아시아 각지에 있는 일본 병사수⁴⁵⁾

	군인수(인)		구성비율(%)	
	육군	해군	육군	해군
千島·樺太	8万8000人	3000人	3.0	0.8
朝鮮北部	9万4000人	8400人	3.2	2.2
朝鮮南部	20万0200人	3万3300人	6.8	8.7
台湾	12万8100人	6万2400人	4.3	16.3
滿州	66万4000人	1500人	22.4	0.4
中国(香港 포함)	105万5700人	6万9200人	35.6	18.1
미얀마(인도 포함)	7万0400人	1100人	2.4	0.3
태국	10万6000人	1500人	3.6	0.4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9万0400人	7800人	3.1	2.0
말레이시아·싱가폴	8万4800人	4万9900人	2.9	13.1
네덜란드령 인도차이나	23万5800人	5万5500人	8.0	14.5
필리핀	9万7300人	2万9900人	3.3	7.8
太平洋諸島	4万8600人	5万8300人	1.6	15.3
합계	296万3300人	38万1800人	100.0	100.0

43) 森田芳夫, 『朝鮮終戦の記録—米ソ兩軍の進駐と日本人の引揚』, 巖南菴書店, 1964, 7쪽

44) 防衛庁防衛研究所, 内務省管理局, 『朝鮮, 台湾及樺太ニ関スル前後装置要領(案)』, 一九四五年 八月 十五日

45) <https://honkawa2.sakura.ne.jp/8050.html> 図録▽アジア各地における終戦時日本軍の兵数 旧厚生省援護局 조사, 1945年8月15日 병사수(東京新聞, 大図解シリーズ「終戦の日を考える」, 図録8050, 2010.8.8.)(2025.10.14. 검색)

당시 전쟁에서 패한 일본 정부는 대규모의 재외일본인을 해외로부터 수송해 올 수 있는 여력도 없었으며, 재외일본인이 생활 기반을 모두 버리고 일본에 돌아와도 그들을 원조할 수 있는 경제력도 없었다. 또한 해외에 이주해 오랫동안 생활하고 있던 일본인은 생활습관이 바뀌고, 다양한 사상에 접할 기회도 많았으며, 국내에 있는 일본인보다 국제정세에 대한 지식도 풍부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귀환하여 일본의 치안과 질서를 어지럽힐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⁴⁶⁾ 그러나 점령군이 재외일본인에 대한 방침을 전면귀환으로 밝히자, 일본 정부도 8월 21일에 재외 일반 해외주재일본인 귀환계획입안을 종합계획국과 내무성관리국이 담당하여 처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같은 날, 내각회의에서 다시 종합계획국을 폐지하고 조사국을 설치하기로 결정하여, 귀환은 내각 조사국과 내무성관리국의 소관이 되었다. 이처럼 재외일본인 귀환을 소관할 부서가 정해지자, 8월 30일 차관회의에서는 “외지 및 외국 재류 방인 귀환자 응급 원호 장치 요강”을 결정하였다.⁴⁷⁾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GHQ로부터 구체적인 귀환방침이 정해질 때까지 일본 정부는 독자적인 방침을 가지고 실행하기 위해서 회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9월 7일에는 “원정부대 및 거류민 귀환수송 등에 관한 실시요령”을 내각회의에서 결정하고, 9월 20일 차관회의에서는 귀환작업을 담당할 사무소를 모지(門司)·시모노세키(下関)에 설치하며, 그 외의 지역에도 필요에 따라서 사무소나 출장소를 설치하도록 결정하였다.⁴⁸⁾ 그러나 GHQ가 정식으로 설치되면서 일본 정부의 업무는 GHQ의 관리하에 들어가게 되었고, 귀환업무 또한 GHQ가 관장하게 되었다. 이에 GHQ는 10월

46) 유지아, 「전후 재조선일본군의 무장해제 과정에서 형성된 한미일관계」, 178-179쪽.

47) 厚生省編, 『引揚援護の記録復刻版』, クレス出版, 2000, 3쪽.

48) 森田芳夫, 『朝鮮終戦の記録—米ソ兩軍の進駐と日本人の引揚』, 336쪽.

12일에 귀환에 관한 중앙책임관청을 결정하도록 지시하였고, 10월 18일 후생성이 귀환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책임관청으로 결정되어, 10월 22일에는 후생성 사회국 내에 ‘귀환원호과’가 설치되었다.⁴⁹⁾

GHQ는 10월 16일 각서 ‘점령지역에서의 일본인 귀환에 관한 방침’을 결정하여 “일본 국민의 귀환에 충당할 수 있는 일본 해군함정 및 상선을 최대한 이용할 것”이라고 지시하고, 일본 정부에 귀환에 사용할 선박의 운항·인원수송·식량 적재 및 보급을 맡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귀환은 통상 항로상의 항구가 아니라 귀환항으로 지정된 항구에서만 실시하며, 귀환항은 하카타(博多), 하코다테(函館), 가라츠(唐津), 가고시마(鹿児島), 구레(呉), 마이즈루(舞鶴), 나고야(名古屋), 사세보(佐世保), 센자키(仙崎), 시모노세키(下関), 우라가(浦賀)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일본 육·해군의 이동을 최우선으로 하고, 민간인의 이동은 다음으로 할 것”이라고 규정하여, 일반 해외주재일본인과 군인의 귀환을 명확히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든 일본인은 본토에 귀환하기에 앞서 무장해제될 것”이라고 명시함으로써,⁵⁰⁾ 점령군의 최우선 임무가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각 지역의 상황에 따라 실행과정에서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예컨대, 조선에서는 일본군이 마지막으로 철수한다고 선언했지만, 실제 한반도 북부에서는 군이 제일 먼저 소련군에게 무장해제를 받아 억류되고 한반도 남부에서도 군이 제일 먼저 미군에게 귀환명령을 받았다.

49) 厚生省編, 『引揚援護の記録復刻版』, 4~5쪽

50) General Headquarters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file AG 370.05(7 MAY 1946) GC, (SCAPIN-927), APO 7, May 1946, subject: “Repatriation”, ANNEX II.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일본이 패전할 당시, 일본군은 대부분 해외에서 전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무장해제를 당하는 상황이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각 지역에서 일본군이 무장해제되는 과정은 매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에는, 한반도의 지리적인 위치상 재조선일본인의 귀환뿐만 아니라 만주로부터 피난 온 일본인의 귀환작업을 위한 본부 역할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미 제24군단의 부담은 매우 컸다. 따라서 미 제24군단은 일본인의 귀환 작업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남한의 치안을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재조선일본군’의 협력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판단하여, 바로 무장해제 시키지 않고 질서유지군으로 활용한 후 마지막에 일본으로 귀환시켰다.⁵¹⁾

해외로부터의 복원은 미군 관리 지역에서는 9월부터 1946년 5월까지, 중국군 관리 지역에서는 1945년 11월부터 1946년 7월까지, 호주군 관리 지역에서는 1945년 11월부터 1946년 7월까지, 영국군 관리 지역에서는 1946년 5월부터 9월까지 그리고 1947년 3월부터 1948년 1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한편 소련군 관리 지역에서는 시베리아로의 이송·역류가 이루어졌으며, 복원은 GHQ와 대일 이사회 소련 대표 간 협정이 성립된 1946년 12월까지 진행되었다.⁵²⁾ 당시, 복원된 인원수는 육군 547만 3,000명이고(본토 308만 5,000명), 해군 242만 1,000명(본토 44만 9,000명)이었다. 그리고 일본 국내 육군의 복원은 8월 25일부터 10월 25일까지, 해군의 경우는 8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거의 완료되었다.⁵³⁾

51) 유지아, 「전후 재조선일본군의 무장해제 과정에서 형성된 한미일관계」 참조.

52) 浜井和史, 『復員関係史料集成 1 2—復員に関する記録／史料解題』, ゆまに書房, 2010, 164-167쪽.

53) 浜井和史, 『復員関係史料集成 1 2—復員に関する記録／史料解題』, 164-167쪽.



〈그림 1〉 아시아·태평양전쟁 후 해외에서 귀환한 일본인⁵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포츠담 선언에 근거한 대일점령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모든 군대와 군사 조직을 해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본의 참모본부 및 해군군령부의 기능 일부가 각각 육군성과 해군성에 흡수되어 존속하였고, 이후에는 제1, 제2 복원성으로 명칭을 바꾸어 존속하는 등 그 방침이 부분적으로 수정되었다. 이 외에도 구 군사 기관의 존속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귀환 수송을 담당할 해군 관련 수송선은 운항을 위해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의 존속을 결정했다.

이들의 주요 임무는 점령군의 진주 및 복구를 위해 항로의 안전을 확보하는 항로 개척 업무로, 이른바 기뢰 소해(掃海) 작업이었

54) <https://honkawa2.sakura.ne.jp/5226.html> 図録▽アジア太平洋戦争における海外からの引き揚げ 2015年3月31日, 厚生労働省; 東京新聞, 「大図解」, 図録 5226, 2007.8.19.(2025.10.14. 검색)

다. 당시 일본 해역에는 구 해군이 방어용으로 부설한 계류 기뢰(와이어로 고정된 접촉식 기뢰) 약 5만 5천 발과, 미군이 공중 투하한 감응 침저 기뢰(자기, 음향, 수압의 변화에 반응하는 기뢰) 약 1만 발이 남아 있었다. 이 기뢰들로 인해 재해·사고·폭발이 다수 발생하여 선박의 항행이 크게 저해되었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기 위해 구 해군의 소해 부대는 거의 그대로 유지된 채 패전 다음 날부터 임무를 계속하였다.⁵⁵⁾

이어 9월 16일 미군은 구 해군 소해 부대를 미 제5함대 부대(태평양 방면 소해 부대) 지휘하에 편입시켰고, 10월 6일부터는 점령군의 명령을 받아 소해 임무를 재개했다. 일본 소해 부대는 함정(해방함 1척, 어선 개조 250톤급 소해 특무정, 350톤급 구축함 특무정, 예인선, 어선 등), 계급장을 제외한 제복과 작업복 등도 모두 구 해군이 사용하던 것을 그대로 사용했으며, 인원은 1만 9천 명에 달했다. 이후 소해 부대는 해군성이 폐지되고 제2복원성이 설치됨에 따라, 제2복원성 총무국으로 이관되어 존속하였다. 이처럼 점령이 실질적으로 전개되자 GHQ는 일본군의 전면해체라는 당초의 계획과 달리 필요에 따라 일부 일본군 조직을 존속시켰고, 이는 이후 일본이 경찰예비대 창설과 자위대로의 전환을 거쳐 재군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인적·제도적 재원이 되었음을 시사한다.

V. 맺음말

1945년 9월 2일 항복문서 조인으로부터 6일 후, 미군의 본격적인 일본 진주가 시작되었다. 이후 1945년 말까지 약 43만 명에 달

55) 坂本祐信, 『近現代日本の軍事史』第3卷, 40쪽.

하는 연합군이 일본 전국에 진주하였다. 미군의 일본 본토 진주는 역사상 최초의 경험이었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큰 공포를 느꼈으나, 점령자체는 예상보다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그 이유는 천황보존주의를 견지한 일본 정치인들의 입장과 성과를 중시한 미국의 점령정책이 잘 맞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본은 미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태도를 취하였고 미국 또한 천황의 면책을 전제로 비교적 온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연합국의 대일점령정책에서 가장 우선적인 목표는 일본의 비군사화였다. 이에 따라 군사 관련 시설과 군수 공장의 파괴 또는 접수, 군사 기구의 해체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리고 1945년 8월 25일에 발표된 ‘육해군인에 대한 칙유(勅諭)’에 의해 육해군 전투 부대는 해체되었고, 육군성과 해군성의 업무는 복원 업무(제대 및 귀국)만 남게 되었다. 이어서 10월 15일에는 해군 군령부가, 11월 30일에는 육군 참모본부가 각각 폐지되었다. 나아가 12월 1일에는 육군성과 해군성이 폐지되고, 각각 제1복원성(復員省)과 제2복원성으로 개편되었다. 이로써 메이지 시대 창군 이래 위용을 자랑하던 대일본제국 육·해군은 형식적으로 소멸되었다. 또한 일본이 패전할 당시 일본군은 대부분 해외에서 전투를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연합군에 의해 무장해제를 당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지역별로 일본군이 무장해제 과정은 매우 상이한 양상을 보였으며, 당초 연합군의 원칙과 어긋나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미국은 패전 이후 대일 점령을 단독·간접 통치 방식으로 수행하기로 결정하고, 일본에 진주할 당시부터 일본 정부기관을 활용한 점령계획을 수립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수행할 책임자로 전쟁시기 엘리트였던 일본군 및 장교들을 주목했다. 특히 미군은 구 해군 소해 부대를 미 제5함대 부대의 지휘하에 편입시켜 소해

임무를 맡겼다. 이후 소해 부대는 해군성이 폐지되고 제2복원성이 설치됨에 따라, 제2복원성 총무국으로 이관되어 존속하였다. 이처럼 점령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자 GHQ는 일본군의 전면해체라는 원래의 계획과는 달리 필요에 따라 일본군 조직을 존속시켰고, 이는 이후 일본이 재군비하는 과정에서 인적·제도적 재원이 되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아시아·태평양전쟁 이후 일본의 항복과 점령 체제는 미국과 연합국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용되었다. 특히 냉전이 고착화되면서 미국의 단독 점령이 견고해지고, 일본 또한 미국에 의지한 안보체제를 강화하면서 아시아·태평양전쟁에 대한 책임의식은 점차 약화되었다. 그 결과 일본은 패전국임에도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기반으로 재건에 성공하는 한편, 아시아와의 관계에서 풀어야 할 전후처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인식의 결여는 각국의 역사 교육, 정치적 담론, 그리고 국제 관계에까지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참고문헌〉

■ 사료

“SWNCC 70/5,” August 18, 1945, 740.00119 Record Group 59, Department Records Decimal File, 1945–1949, CONTROL (JAPAN)/18–1845, National Archives (Washington, D.C.).

General Headquarters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file AG 370.05(7 MAY 1946) GC, (SCAPIN–927), APO 7, May 1946, subject:“Repatriation”, ANNEX II.

「4. ポツダム"米英支三国宣言(1945年7月26日"ポツダム"ニ於テ)」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Ref.B18090004500,ポツダム宣言受諾関係一件 第3巻(終戦関係調書)(A'.1.0.0.1)(外務省外交史料館)

防衛庁防衛研究所, 内務省管理局, 「朝鮮, 台湾及樺太ニ関スル前後装置要領(案)」, 一九四五年 八月 十五日

<https://honkawa2.sakura.ne.jp/5226.html> 図録▽アジア各地における終戦時日本軍の兵数 旧厚生省援護局 조사, 1945年8月15日 병사수(東京新聞, 大図解シリーズ「終戦の日を考える」, 図録8050, 2010.8.8.)(2025.10.14. 검색)

<https://honkawa2.sakura.ne.jp/5226.html> 図録▽アジア太平洋戦争における海外からの引き揚げ 2015年3月31日, 厚生労働省; 東京新聞, 「大図解」, 図録5226, 2007.8.19.(2025.10.14. 검색)

www.mofa.go.jp. “外務省: 外交史料 Q&A 昭和戦後期”. (2025. 10.16. 검색)

<https://www.jacar.archives.go.jp/das/image/C15011312900> 「降伏後に於ける米国の初期の対日方針」(SWNCC 150–4) (2025.10.16. 검색) ; 江藤淳, 『占領記録1—降伏文書調印経緯』, 講談社, 1989

https://www.mofa.go.jp/mofaj/ms/da/page22_002192.html(2025.10.16. 검색) 일본외문성 자료 「GENERAL ORDER NO.I」, OFFICE OF THE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2 September 1945

■ 논문 및 저서

- 荒敬, 『日本占領史研究序説』, 柏書房, 1994
- 有末精三, 『終戦秘史 有末機関長の手記』, 芙蓉書房出版, 1987
- 五百旗頭真, 『占領期—首相たちの新日本』(20世紀の日本3), 読売新聞社, 1997
- , 『戦後日本外交史』, 有斐閣, 1999
- 編, 『日米関係史』, 有斐閣, 2008
- 江藤淳, 『占領史録(上)』, 講談社学術文庫, 1995
- 川川晋史, 『在日米軍基地 米軍と国連軍「2つの顔」の80年史』, 中公新書, 2024
- 河原匡喜, 『マッカーサーが来た日—8月15日からの20日間』, 新人物往来社, 1995
- 楠綾子, 『占領から独立へ 1945~1952』, 吉川弘文館, 2013
- 厚生省編, 『引揚援護の記録復刻版』, クレス出版, 2000
- 坂本祐信, 『近現代日本の軍事史』第3巻, かや書房, 2014
- サー・セシル・パウチャー, 『英国空軍少将の見た日本占領と朝鮮戦争』, 社会評論社, 2008
- 茂田宏・末田昌二編, 『日ソ基本文書・資料集 1955-1988年』, 世界の動き社, 1988
- 千田武志, 『英連邦軍の日本進駐と展開』, 御茶の水書房, 1997
- 竹前栄治, 『英連邦日本占領軍(BCOF)の成立(1)(上)』, 『東京経大会誌, 経済学』207, 1998
- 浜井和史, 『復員関係史料集成 1 2—復員に関する記録/史料解題』, ゆまに書房, 2010
- 鹿島平和研究所編, 『日本外交史 2 6—終戦から講和まで』, 鹿島研究所出版会, 1973
- 福永文夫, 『日本占領史 1945~1952—東京・ワシントン・沖縄』, 中央公論新社, 2014
- 増田弘, 『大日本帝国の崩壊と引揚・復員』, 慶應義塾大学出版会, 2012
- 升味準之輔, 『日本政治史 4—占領改革, 自民党支配』, 東京大学出版会, 1988
- 森田芳夫, 『朝鮮終戦の記録—米ソ両軍の進駐と日本人の引揚』, 巖南菑書店, 1964
- 柳田邦男, 『零戦燃ゆ 渾身篇』, 文藝春秋, 1990
- 山縣大樹, 『帝国陸海軍の戦後史—その解体・再編と旧軍エリート』, 九州大学出版会, 2020

山本智之, 『日本陸軍戦争終結過程の研究』, 芙蓉書房出版, 2010

유지아, 「전후 재조선일본군의 무장해제 과정에서 형성된 한미일관계」, 『한일관계사연구』 제28집, 2007

-----, 「일본재군비과정에서 제국군인의 역할과 위상」, 『日本歴史研究』第33輯, 2011

<Abstract>

After the Asia-Pacific War, Allied Forces broke up in Japan and the Japanese military

YOO, JI-A(Won-Kwang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beginning of the Japanese occupation and the dissolution of the Japanese military immediately after 1945. This process is valuable as a basic study to confirm the existence and status of Japan's current security, constitution, and Self-Defense Forces. The characteristic of Japanese occupation by the Allies is that it is not a divisional occupation by multiple states, but a sole occupation by the United States. And rather than direct control, the Japanese government was kept alive and indirectly. Therefore, the United States planned to take advantage of Japanese military and officers who were elite and to occupy the occupation using Japanese government agencies. This suggests that the United States kept the Japanese military alive, contrary to the original occupation plan of the Japanese military's total dismantlement, and that they later financed the process of Japan's re-armament.

In this way, the political situ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Allies changed the Japanese surrender and occupation system after the Asia-Pacific War. In particular, as the Cold War became entrenched, the US occupation became solid,

and Japan also strengthened its security system, which relied on the United States, reducing its sense of responsibility for the Asia–Pacific War. As a result, Japan lost, but instead of forming an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it failed to properly recognize its relationship with Asia or its post–war treatment. This perception deeply affects each country's history education, political discours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Keywords: Asia-Pacific War, Allied Pearl, Japanese occupation, dissolution, restoration of Japanese military